

EAI 한국인의 정체성 세미나

##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정치정체성

2020. 7.6

이 내 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역사인식과 정체성(identity)

- 국민의 정체성은 집합적인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 혹은 변화함.
- 때로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사회집단과 개인에 따라 상이한 관점과 인식이 존재.
  - 해방정국, 분단과 건국, 한국전쟁, 5.16쿠데타, 유신체재, 광주항쟁, 남북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해석이 충돌.
-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연령대, 출신지역,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대립.
- 즉 민주화 이후 현대사 해석의 이념화 혹은 정치화 현상이 진행.
  -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쟁. 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역사해석 논쟁에 가담,
-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상반된 관점

- ▶ 긍정사관: 현대사를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로 인식,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 미래에 대한 희망 제시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하의 억압, 국가폭력, 불의와 왜곡 등을 미화하거나 눈감는 경향  
기득권 질서의 옹호와 개혁 반대논리로 이용될 수 있음.
- ▶ 부정사관: 현대사를 정당성이 취약한 분단국가를 고착화하고 불의와 왜곡이 심한 좌절의 역사로 인식, 과거사 청산과 불완전한 민주화를 완성하는 과제에 주목. 한국 현대사의 성취를 부정하는 경향.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약화. 미래지향적 논의의 부재

# 역사인식과 정체성(identity)

## ▶ 발제의 주요 내용

1. 한국 국민들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내용과 변화 추이를 분석
  - 한민족 역사 &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 해방정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
  -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
  - 역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2. 국민들의 역사적 사건과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연령대, 출신지역, 지지정당, 이념성향에 따라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가를 분석
3.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정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정치 정체성의 두 핵심 차원: 이념성향 & 정당일체감

#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 귀하께서는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게 생 각한다	자랑스럽게 생 각하는 평균이다	자랑 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평균이다	매우 부끄럽게 생 각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9.6	49.6	35.1	2.8	0.4	2.6
연령						
18-29세	6.0	40.7	44.5	4.4	1.1	3.3
30대	8.1	49.7	37.9	1.2	0.0	3.1
40대	11.6	47.4	38.9	1.1	0.0	1.1
50대	7.6	50.5	34.8	3.0	0.0	3.0
60세 이상	12.9	56.3	24.6	3.7	0.7	4.4
이념성향						
진보	9.4	51.9	33.4	2.3	0.3	2.6
중도	8.8	48.6	37.9	1.9	0.2	2.6
보수	11.1	48.5	32.1	5.0	0.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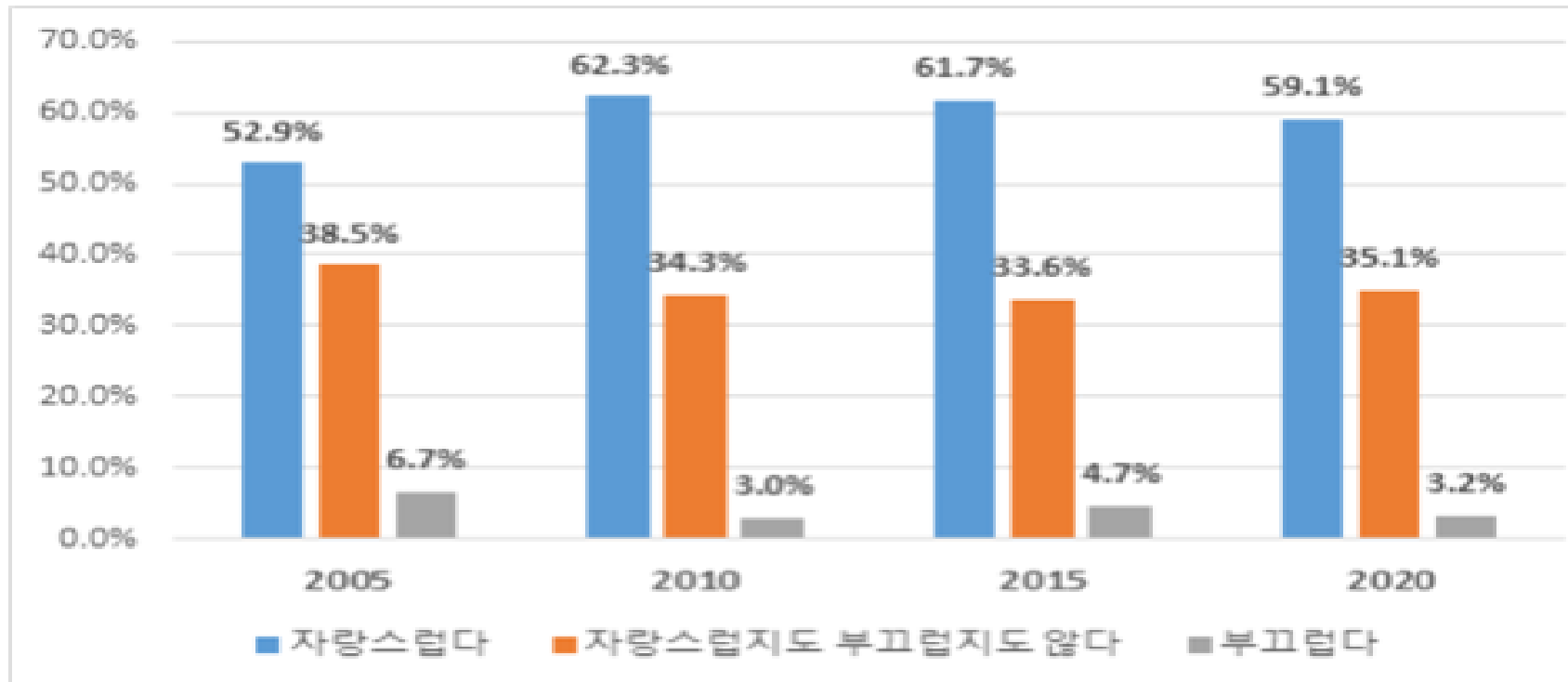
▪ 자랑스럽다 59.2%, 부끄럽다 3.2%로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수

▪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든 세대일수록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높아

▪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역사 자긍심이 제일 낮고 진보와 보수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긍심 보여

#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의 변화(2005-2020)



- 자랑스럽다는 응답 2005년 52.9% 에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  
부끄럽다는 응답 2005년 6.7% -> 2020년 3.2%로 감소
-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거나 불의와 왜곡이 가득한 부정적 역사인식 (소위 자학사관)의 증거는 없음.

# 대한민국 정체성(소속감) (2020 조사)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4.5	55.6	17.1	2.6	0.1
연령					
18-29세	18.1	49.5	26.9	4.9	0.5
30대	14.3	60.9	22.4	2.5	0.0
40대	19.5	61.1	17.9	1.6	0.0
50대	29.3	57.1	12.1	1.5	0.0
60세이상	34.9	51.8	10.7	2.6	0.0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25.1	55.7	16.7	2.5	0.0
미래통합당	29.4	55.7	12.4	2.5	0.0
정의당	13.0	47.8	39.1	0.0	0.0
기타 정당	25.8	54.8	16.1	3.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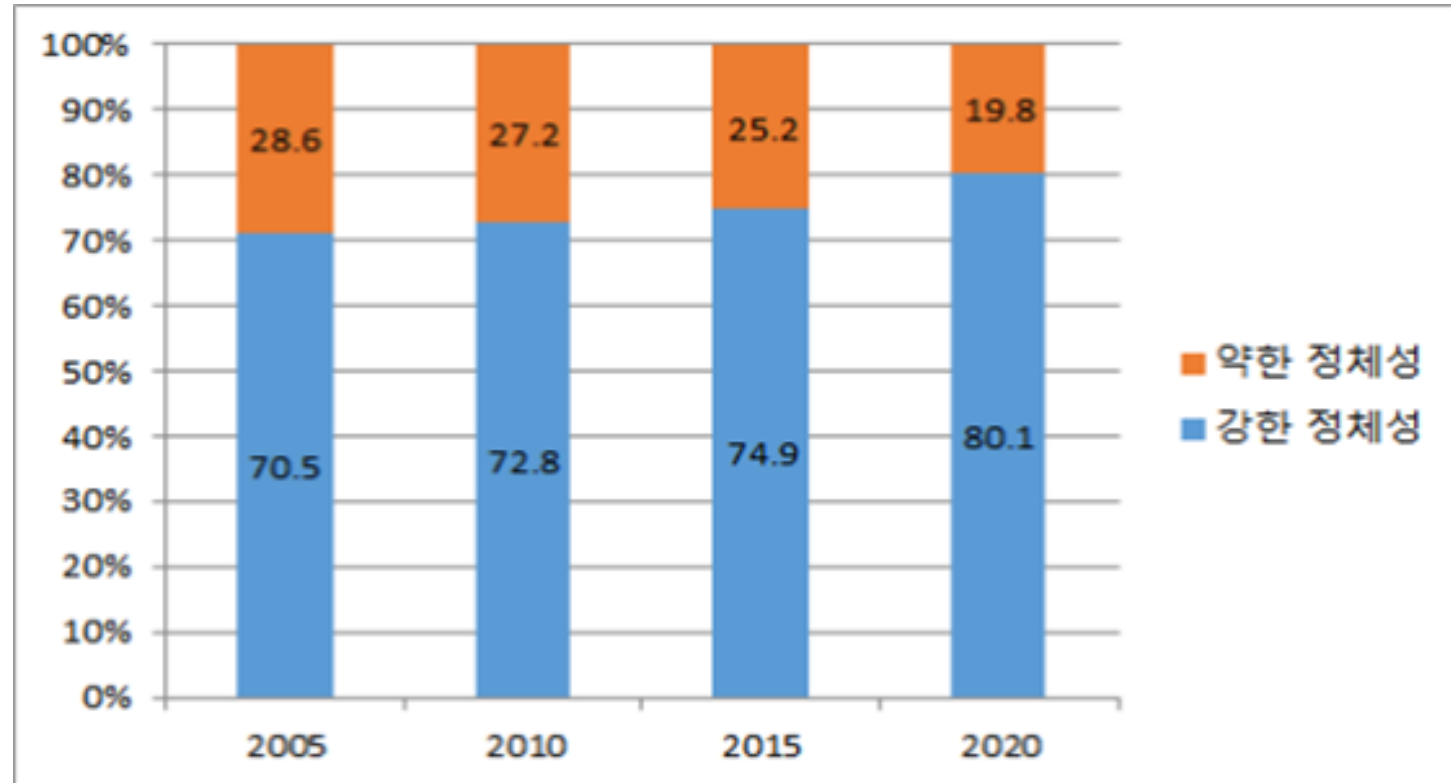
▪ 80.1%의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높은 정체성 혹은 소속감 보여

▪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층보다 나이가 들수록 강한 대한민국 정체성 보여

▪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가장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의당 지지자가 가장 약한 정체성 보여

▪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 응답자가 진보와 중도에 비해 강한 정체성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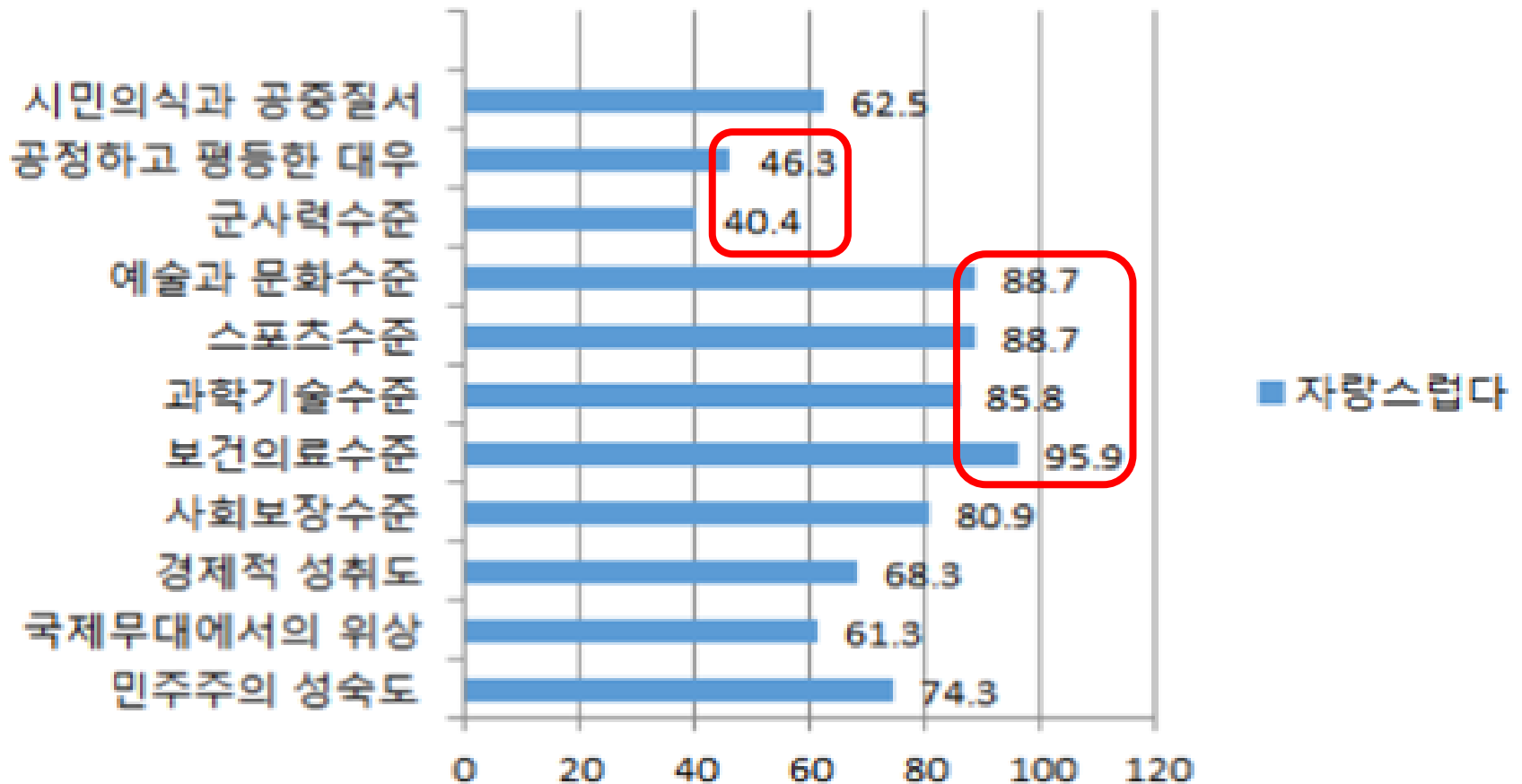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정체성(소속감)의 변화 추이 (2005-2020)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강해져, 2005년 70.5%, 2010년 72.8, 2015년 74.9, 그리고 2020년에는 80.1로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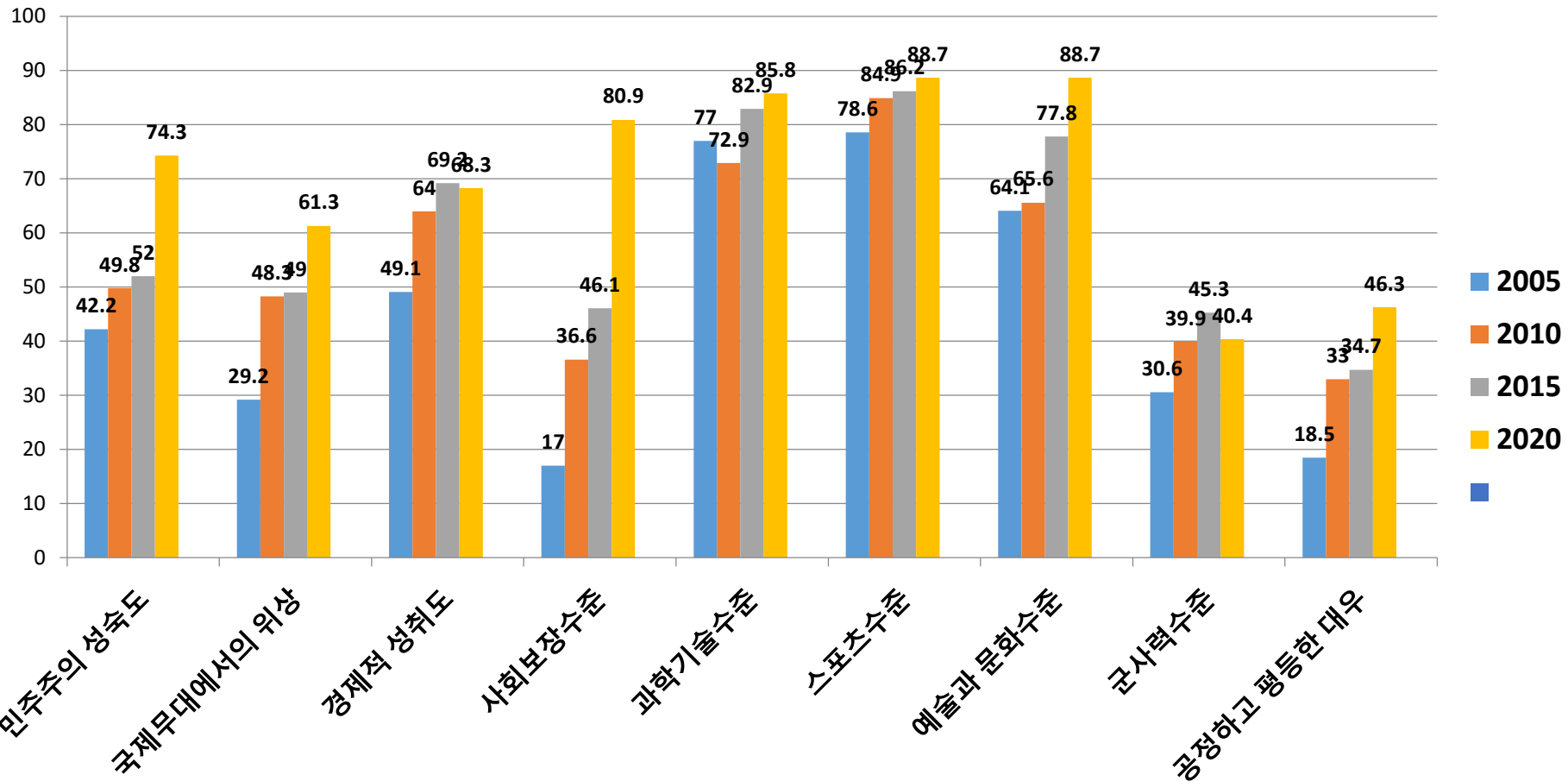
# 영역별 국가 자긍심

“귀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와 “대체로 자랑스럽다”의 응답을 합한 비율





# 영역별 국가 자긍심의 변화추이(2005-2020)



- 한국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 거의 전 영역에서 2005년 이후 발전했다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
- 2020년의 경우 전 세계가 corona-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국의 모범적 대응이 인정받으며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양
- 그러나 군사력수준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

#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

- 해방3년은 단일 민족국가의 설립에 실패하고 남북한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미군정과 이승만의 주도아래 반공이념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뿌리내리는 한국 정치체제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
- 해방 3년은 논쟁과 평가가 엇갈리는 시기임. 38선 획정과 미군정, 반탁과 신탁, 통일정부와 단독정부, 미군정에 대한 평가 등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대립.
- 해방정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해방 3년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인식을 반영.



#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

##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이승만	김구	김일성	미국정부	소련정부
전체 평균	49.1	92.2	10.0	49.3	8.6
이념성향					
진보	39.3	93.2	10.1	36.0	7.8
중도	48.8	90.7	10.5	51.6	9.5
보수	60.7	93.9	9.2	61.1	8.0
연령					
18-29	47.3	89.0	9.9	46.2	7.7
30대	42.9	92.5	9.3	45.3	10.6
40대	44.2	90.5	11.6	47.9	9.5
50대	47.5	94.9	12.1	48.5	9.1
60세이상	58.5	93.4	7.7	55.1	7.0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41.5	91.9	9.0	42.4	9.4
미래통합당	63.2	93.0	13.9	62.7	8.0
정의당	39.1	82.6	4.3	43.5	8.7
기타 정당	61.3	100	19.4	48.4	9.7

▪ 이승만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49.1, 부정적 평가 50.9로 엇갈림.

▪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역할과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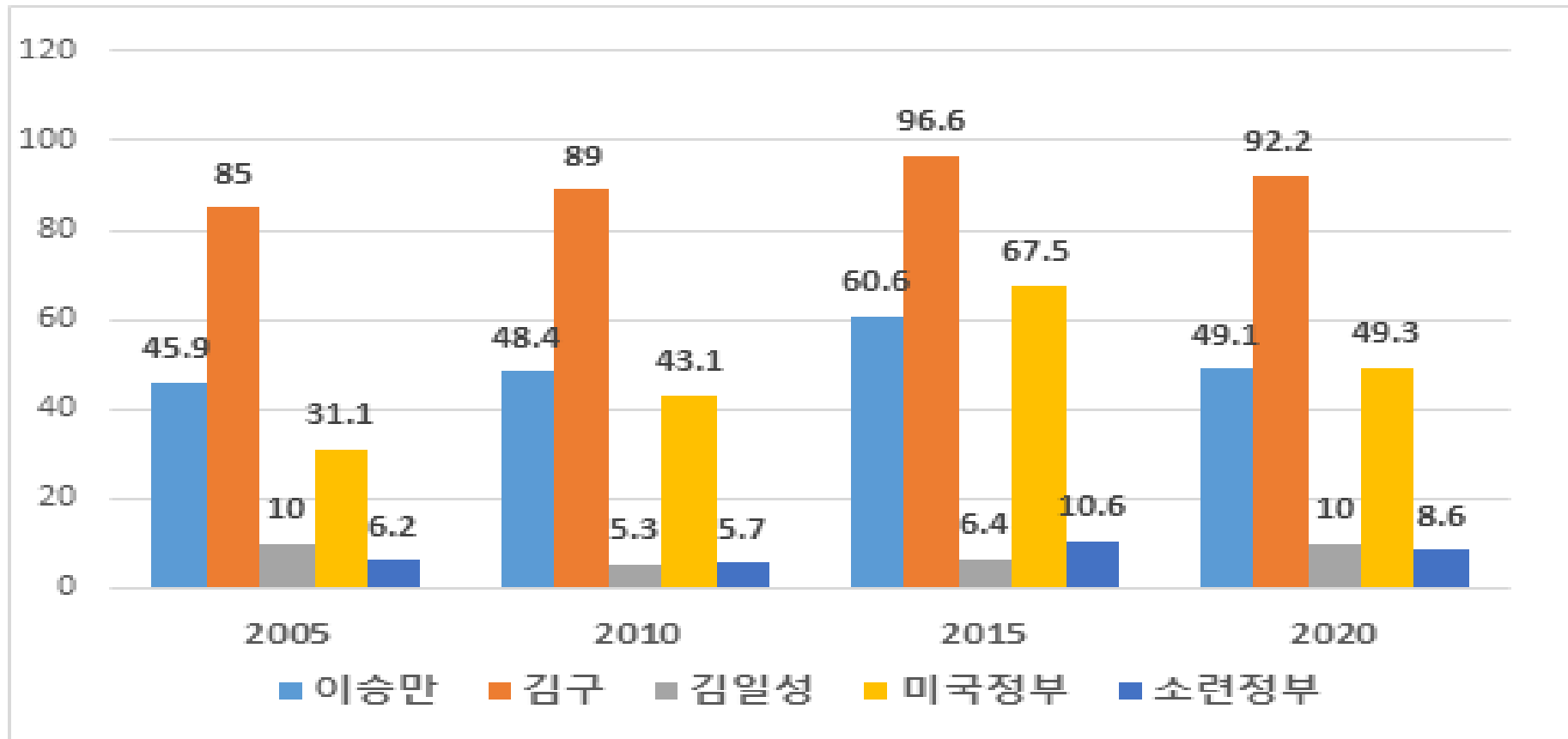
▪ 보수적 이념성향과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진보성향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승만과 미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60세 이상 응답자들의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과 뚜렷한 차이

▪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이념성향, 지지 정당, 연령대에 상관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 김일성과 소련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연령대에 관계없이 대체로 부정적 평가

# 해방정국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의 변화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2005년 45.9%에서 2010년 48.4%, 2015년 60.6%로 증가했다가 , 2020년 49.1%로 하락.
- 미국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5년 31.1%에서 2010년 43.1%, 2015년 67.5%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조사에서 49.3%로 하락.

# 한국전쟁 발발 책임론

	남한정부	북한정부	미국정부	소련정부	일본정부	중국정부
전체	10.7	77.1	24.6	42.1	10.4	33.4
이념성향						
진보	10.1	74.0	30.8	39.9	10.4	33.8
중도	12.3	74.9	25.3	45.3	11.2	29.3
보수	8.8	84.0	16.4	39.3	8.8	39.7
연령대						
18-29	11.5	75.8	21.4	44.5	12.1	31.3
30대	11.8	75.8	32.3	39.1	12.4	28.6
40대	11.1	77.9	24.2	41.6	8.9	33.7
50대	10.1	68.7	29.3	43.9	13.6	33.6
60세 이상	9.6	84.2	19.1	41.2	6.6	37.1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10.6	73.3	28.0	42.2	14.0	30.1
미래통합당	10.0	80.1	20.9	44.8	7.5	33.8
정의당	17.4	69.6	30.4	43.5	13.0	26.1
기타 정당	16.1	71.0	35.5	32.3	19.4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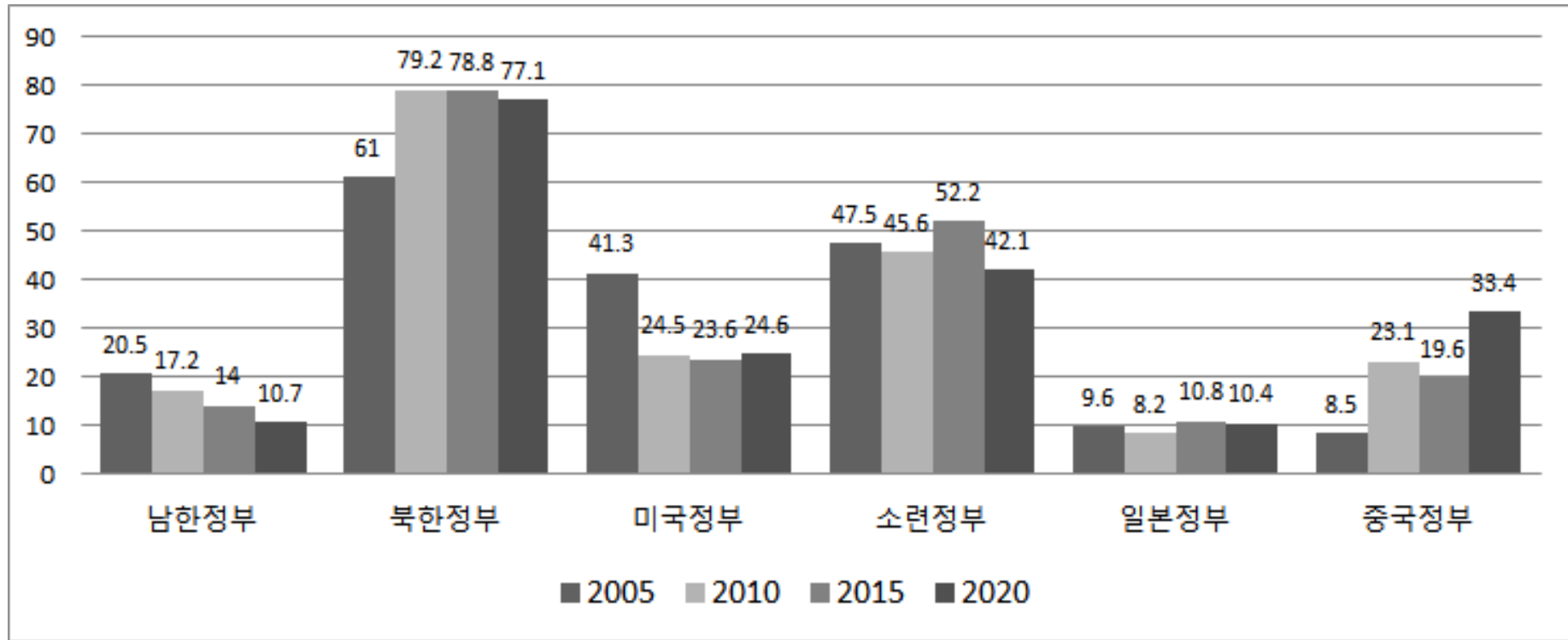
■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음, 다음으로 소련, 중국, 미국, 남한의 순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

■ 진보층은 미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고 보수층은 북한, 중국의 책임 비율이 높음.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미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북한과 소련, 중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북한과 중국 책임 비율이 높고, 미국 책임 응답비율이 낮음.

#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5-2020)



-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2005년 조사에서는 남한정부와 미국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2010년 조사부터는 남한정부와 미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북한과 소련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더불어 중국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증가.
- 이러한 한국전쟁의 책임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소련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한국전쟁을 김일성이 기획했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들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즉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관한 상반된 관점 가운데 북침설, 미국함정설의 정당성은 하락하고 남침설이 정설로 굳어지는 추세를 반영.

# 역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오도를 반영.
-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등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짐.
-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상반된 평가가 대립.
-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변화. 특히 조사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특히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 그 정당과 관련한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
-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가 보수 정당과 관련된 역대 대통령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관점

## 쟁점

분단을 초래한 독선적 권력자인가? 건국의 아버지인가?

## 독선적 권력자

- 미국과 친일파에 기대어 권력을 장악한 초대 대통령
- 이승만의 파당성 혹은 독선, 권력욕
-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한 책임

## 건국의 아버지

-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가진 인물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
- 단독정부 수립은 당시 미수의 경쟁가속화, 북한과 소련의 유착과 사회주의 국가 수립 준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관점

## 쟁점

산업화의 주역인가,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자인가?  
박정희의 리더십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인가?

## 산업화의 주역

- 근대화의 비전을 가진 청렴한 지도자
- 산업화를 설계하고 성취시킨 박정희 리더십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
-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쟁취

##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자

- 삼선개헌과 유신체제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말살, 장기독재 추구
- 민주화 세력과 노동자 농민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배제
- 한국의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은 박정희 리더십이 아니라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탄압과 희생, 좋은 국제경제 환경

# 역대 정부의 정치 업적 평가

“다음의 역대 정부들이 정치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대체로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대통령	평균 값	표준편차	순위
이승만	2.37	0.72	6
박정희	2.67	0.86	4
전두환	1.96	0.80	9
노태우	2.06	0.65	7
김영삼	2.50	0.65	5
김대중	2.84	0.66	2
노무현	2.95	0.69	1
이명박	2.05	0.71	8
박근혜	1.89	0.73	10
문재인	2.79	0.75	3
전체	2.24	0.36	

▪ 노무현이 1위, 김대중 2위, 문재인 3위 순.

▪ 박정희 대통령이 4위라는 점은 유신체제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고려하면 이외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정치업적에 대한 평가로 연결된 것으로 추론.

▪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 정부가 하위권을 차지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

# 역대 정부의 경제 업적 평가

“다음의 역대 정부들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대체로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대통령	평균 값	표준편차	순위
이승만	2.35	0.68	6
박정희	3.30	0.66	1
전두환	2.41	0.80	5
노태우	2.19	0.65	8
김영삼	2.31	0.63	7
김대중	2.74	0.64	3
노무현	2.77	0.66	2
이명박	2.13	0.72	9
박근혜	1.93	0.69	10
문재인	2.64	0.71	4
전체	2.48	0.35	

▪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차지.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9, 10위.

▪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부가 2,3,4위를 차지한 결과는 이 정부들의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경제업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 2020년의 정치적 분위기, 특히 정당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

# 역대 정부의 종합 업적 평가

대통령	평균 값	표준편차	종합업적 합산 순위	서열 평균 순위
이승만	4.72	1.28	6	5
박정희	5.97	1.28	1	2
전두환	4.37	1.39	7	7
노태우	4.26	1.14	8	8
김영삼	4.81	1.09	5	5
김대중	5.58	1.14	3	2
노무현	5.72	1.20	2	1
이명박	4.18	1.29	9	9
박근혜	3.82	1.29	10	10
문재인	5.44	1.33	4	4
전체	5.44	0.35		

▪ 역대 대통령들의 종합업적은 정치업적과 경제업적을 가중치 없이 더해서 평가. 긍정적 평가 최대값 8, 최소값 2.

▪ 박정희 대통령 1위,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순으로 높아, 이명박, 박근혜가 9, 10위.

▪ 박정희 대통령은 1위, 박근혜 대통령 10위라는 점이 인상적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나타내

▪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결과는 최근 주요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지속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

▪ 과거의 집권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미래의 집권세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회고적 투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역대 정부의 종합업적 평가의 변화 추이 (2005-2020)

	2005년 조사		2010년 조사		2015년 조사		2020년 조사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이승만	4.53	3	4.60	5	4.99	4	4.72	6
박정희	6.65	1	6.44	1	6.46	1	5.97	1
전두환	4.43	4	4.49	6	4.82	5	4.37	7
노태우	3.76	6	4.00	8	4.33	8	4.26	8
김영삼	3.72	7	4.27	7	4.47	7	4.80	5
김대중	4.69	2	5.34	3	5.40	3	5.58	3
노무현	3.94	5	5.40	2	5.48	2	5.71	2
이명박			4.77	4	4.30	9	4.18	9
박근혜					4.61	6	3.81	10
문재인							5.44	4

- 박정희 대통령은 일관되게 1위,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 2,3위 차지.
-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기인 2005 조사에서는 하위권인 5위, 이후 평가가 좋아져서 2위 유지.
-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기인 2010년 조사에서는 4위로 평가, 퇴임 이후 평가에서 9위로 추락.

# 대통령 업적 평가의 주요 요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체	4.72	5.97	4.37	5.58	5.71	5.43
연령대						
18-29세	4.55	5.59	4.03	5.48	5.75	5.31
30대	4.49	5.75	4.39	5.67	5.85	5.48
40대	4.47	5.87	4.28	5.71	5.84	5.62
50대	4.83	6.05	4.41	5.59	5.69	5.50
60세이상	5.04	6.38	4.60	5.51	5.54	5.32
거주지						
서울	4.74	5.57	4.07	5.65	5.64	5.31
대전/충청	4.62	5.95	4.35	5.77	5.85	5.74
광주/전라	4.72	5.67	3.64	6.25	6.52	6.58
대구/경북	5.24	6.62	4.90	5.01	5.23	4.64
부산/울산/경남	4.63	6.26	4.89	5.20	5.63	5.25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4.45	5.62	4.00	5.92	6.16	6.07
미래통합당	5.24	6.72	5.21	4.99	5.07	4.42
정의당	4.87	5.73	3.96	5.54	6.17	5.56
이념성향						
진보	4.34	5.58	3.96	5.79	5.96	5.85
중도	4.79	5.96	4.38	5.63	5.86	5.55
보수	5.05	6.44	4.84	5.27	5.23	4.79

#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

## ◆ 역사인식은 정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차원의 정치 정체성에 주목 :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

### ▶ 역사인식과 이념성향 회귀분석 결과

- 연령, 학력, 대구경북출신 변수가 이념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역사인식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보수이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 업적 평가 변수들은 이념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전두환 정부, 박근혜 정부의 긍정적 업적 평가는 보수성향,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진보이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역사인식과 지지정당 회귀분석 결과

- 인구사회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대구경북출신이 정당일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역사인식 변수들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미래통합당,
- 김대중, 노무현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념성향 결정요인과 역사인식의 영향: 선형 회귀분석

## 종속변수: 이념성향 (1- 진보 10-보수)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오차 (S.E.)	유의확률
인구 및 사회 경제 요인	연령	.219	.041	.000
	소득	-.006	.014	.684
	학력	-.235	.047	.000
	호남출신	-.157	.268	.557
	대구경북출신	.701	.174	.000
역사인식	해방정국시기 이승만의 긍정적 평가	-.069	.096	.473
	해방정국시기 미국정부의 긍정적 평가	.293	.074	.000
	한국전쟁 남한/미국 책임 인식	-.052	.172	.760
	한국전쟁 북한 책임 인식	-.019	.124	.878
대통령 업적평가	이승만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62	.059	.293
	박정희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38	.050	.448
	전두환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124	.046	.007
	김대중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87	.060	.148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101	.058	.000
	박근혜 정부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093	.050	.042
모형 요약	N: 963 R: 0.514 R <sup>2</sup> : 0.251 S.E.: 1.58			



# 지지정당 결정요인과 역사인식의 영향 :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더불어민주당: 1, 미래통합당: 0)

구분	독립변수	회귀계수	유의확률	Exp(B)
인구 및 사회 경제 요인	연령	-.330	.001	.719
	소득	-.012	.719	.988
	학력	.027	.799	1.027
	호남출신	1.129	.167	3.094
	대구경북출신	-1.732	.000	.177
역사인식	해방정국시기 이승만의 긍정적 평가	-.118	.581	.295
	해방정국시기 미국정부의 긍정적 평가	-.393	.072	.016
	한국전쟁 남한/미국 책임 인식	-.272	.475	.762
	한국전쟁 북한 책임 인식	-.130	.637	.878
대통령 업적평가	이승만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136	.319	1.145
	박정희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303	.008	.739
	전두환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267	.009	.765
	김대중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322	.011	1.379
	노무현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584	.000	1.792
	박근혜의 긍정적 종합업적 평가	-.603	.000	.542
모형 요약	N: 668, Cox& Snell R <sup>2</sup> : 0.368 Nagelkerke R <sup>2</sup> : 0.524, 우도비 검정: 카이제곱 306.537, 자유도 16, 유의확률 0.000			

# 조사결과의 요약 및 함의

1.

1. 한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영역별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음.
  - 그러나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에 비해 역사적 자긍심이 낮고 대한민국 정체성도 약해
  - 따라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긍심과 약한 국가 정체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 필요.
2.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평가.
  - 김일성과 소련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연령대에 관계없이 부정적 평가
3.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러나 이념성향, 지지정당, 연령대별로 한국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
4.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1위,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순으로 높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 10위로 최하위권.
  -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등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존재.
  -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변화. 특히 조사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특히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

# 조사결과의 요약 및 함의

5. 역사인식과 정치정체성에 관한 종합 회귀분석에서는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이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보수이념과 미래통합당을 지지.
  - 대통령 업적 평가 변수들은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미래통합당, 김대중, 노무현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6. 한국 국민들의 역사인식의 내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 현대사의 상반된 관점인 긍정사관 vs. 부정사관의 이분법을 넘어 비교적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영역을 정확하게 인지.
  -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수 국민들은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보이고 현대사 해석의 이념화 혹은 정치화 현상이 대중의 역사인식에서는 약화 되는 추세가 발견됨.
  - 역대 대통령의 업적 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1위로 평가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일관 되게 높게 평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